어린이 책꽂이

▲나일강을 따라 떠나는 이집트 여행=웅장하고 신비로운 아부심벨 신전에서부터 현대식 건물들로 가득 찬 수도 카이로까지 이집트의 곳곳을 소개한다. 호기심 강한 6명의 친구들이 신전과 피라미드, 미라가 누워 있는 이집트 박물관, 사람들로 북적이는 아스완 시장 등을 여행하며 이집트의 신비로움에 빠져든다. 〈해와 나무·8천500원〉

▲중학생이 되기 전에 꼭 읽어야 할 만화 수학교과서=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의 차례와 내용을 초등학교 고학년의 눈높이에 맞춘 학습만화. 수학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집합'개념에서부터 '문자와 식' 등에 이르기까지 3개 파트로 구성돼 있다. 〈스콜라·1만1천원〉

▲괴물 그루팔로=주인공 생쥐가 자기보다 힘센 동물들을 만날때 마다 상상의 괴물 그루팔로로 변장하며 위기를 넘기다 진짜 그루팔로를 만나면서 겪게 되는 과정이 흥미롭게 그려져 있다. 각 페이지마다 크고 작은 그림의 변화들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킨더랜드·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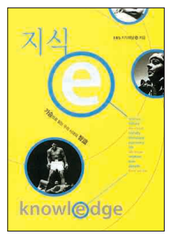
▲전쟁과 평화, 두 얼굴의 역사=역사 속의 전쟁과 평화의 모습을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개인의 용기와 현명한 공생, 비폭력 저항 등 평화를 현실로 만들어 간 역사속의 사례들이 현장감을 준다. 〈푸른숲·1만원〉

▲로켓을 타고 우주로=우주시대를 열게 해준 로켓과 원리, 누구나 한번쯤 꿈꿔 봤을 우주여행을 멋지고 실감나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보여준다. 어린이들이 궁금해하는 우주인들의 생활과 다양한 우주선이 소개돼 있다. 〈웅진주니어·8천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축구공 우리에겐 월드컵 환희 줬지만 인도 어린이엔 바느질 기억 뿐

지식 ⓔ EBS 지식 채널ⓔ 지음



TV 채널을 이리 저리 돌리다 몇차례 접한 프로그램이 있다. 5분 정도의 짧은 프로지만 잔잔한 음악과 강렬한 영상, 정곡을 찌르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막이 함께 어우러진 이 프로를 보고 나면 잠시 잠깐이나마 생각에 빠지게 된다. 프로그램 제목은 EBS의 '지식 채널ⓔ'.

프로그램에 '지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이 프로는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꼭 알았어야 할 것들을 마음을 움직이는 진지한 성찰과 편견 없는 시각으로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준다.

햄버거·라 쿠카라차 등
가슴으로 읽는 우리시대의 智識
EBS 방영작 271편중 40편 실어

EBS의 '지식 채널ⓔ'가 '지식 ⓔ'라는 제목을 달고 책으로 묶여 나왔다.

지난 2005년 첫 방송을 시작한 EBS는 자연(nature), 사회(society), 인간(people), 교육(education), 문학(literature)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영상과 음악, 간결한 메시지로 묶어 '5분 짜리 동영상'으로 제작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책에는 3월30일 현재까지 방영된 총 271편 중 40개의 꼭지가 실려 있다.

방영 당시 가장 많은 화제를 모았던 영상은 32조각의 가죽과 1천620회의 바느질로 제작되는 축구공을 만든 아이들의 얼굴과 함께 시작된 '축구공 경제학'이었다.

"일당 2천만원을 받는 데이비드 베컴.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단 하나 공을 차는 것이었다. 일당 300원을 받는 1만5천명의 인도·파키스탄의 아이들. 우리는 축구공을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는 축구공은 하루종일 바느질 하던 기억뿐이랍니다." 화면에 박혔던 메시지는 책 속에서 고스란히 살아났다.

32조각의 가죽과 1천620회의 바느질로 제작되는 축구공은 하루 일당 300원을 받는 1만5천여명의 파키스탄·인도 어린이들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는가.

책은 햄버거가 단순히 '고기조각을 넣은 빵'이 아닌, '지구촌 이상기후의 주범'임을 환기시키고,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탄생에 환호할 때 미국과 소련이 수많은 동물 우주비행을 시도했지만 어떤 동물도 산 채로 돌아오지 못했던 사실을 들려주며 '우주여행은 인류에겐 커다란 도약이자, 동물에게는 고귀한 희생'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어린 시절 흥겹게 불렀던 '라 쿠카라차'라는 노래가 힘 없는 멕시코 농민들의 피맺힌 역사 속에서 그들이 목놓아 불렀던 노래라는 사실을 아는지. '라 쿠카라차'는 보잘 것 없지만 끈질긴 '바퀴벌레'를 뜻하는 말로 끝까지 투쟁하는 그들에게는 성스러운 노래였다는 사실도 일깨운다.

책은 '여러분은 집을 갖고 태어난 제가 부럽죠?'라는 글과 함께 날 때부터 집을 가진 달팽이와 평생을 두고 집을 마련해야 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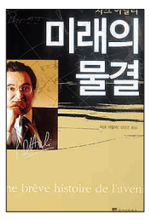
강렬한 영상의 이미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책'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대신, 영상에 등장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담긴 키워드 해설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참고도서도 언급해 두었다.

'지식 채널ⓔ'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방송을 보는 게 좋다. 매주 월~금요일까지 3차례(오후 8시50분, 밤 10시40분, 11시40분) 방송되며 토요일 밤 9시50분에는 1주일분을 한꺼번에 방영한다. EBS 위성방송을 통해서도 수시로 만날 수 있다. 〈북하우스·1만2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 가까운 미래에 11대 강국으로

미래의 물결 자크 아탈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권력은 해체되고, 한국을 포함한 11대 강국이 뜬다. 한국은 그 중에서도 확고한 위치를 갖는다.'

우리나라로선 달콤한 시나리오다.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가 '미래의 물결'에서 주장하고 있는 2025년께 세계의 모습이다. 저자의 말이 허언이나 사탕 발림이 아닌 것은 과거의 실수들을 너무 아프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자는 미래 예측을 위해 과거를 철저히 분석한다. 무려 기원전 700만년 전부터. 13세기 이후 세계 경제의 거점이 됐던 브루게, 베네치아, 앤트워프 등 9개 거점이 명성을 얻을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짚어내고, 파리나 도쿄가 거점이 될 수 없었던 이유도 설명한다.

이제 미국의 몰락을 시작으로 미래의 새로운 세계 지배 체제가 형성된다. '디지털 노마드' 시대의 도래를 점쳤던 저자가 이번에도 쪽집게같은 예측을 내놓은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위즈덤하우스·1만7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日 문학의 거장' 오사무 산문집

나의 소소한 일상 다자이 오사무

'인간 실격', '사양', '달려라 메로스' 등 소설을 펴내며 20세기 일본 문학의 한 축을 이뤘던 다자이 오사무(1909~1948)의 산문집이 출간됐다.

'나의 소소한 일상'에는 그의 문학 원류를 이해할 수 있는 수필과 아포리즘이 담겨 있다. 다자이 오사무 사후 60주년에 즈음해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았던 수필들을 엮었다.

일본 현대 소설의 아버지, 제1회 아쿠타가와상 차석 수상에 항의했던 데카당스 문학의 기수, 갑부의 아들로 태어나 마약 중독은 물론 자살시도를 거듭했던 일본 문단의 이단아, 무라카미 하루키와 요시모토 바나나가 존경하는 거장, 결국 자살로 39년의 짧은 삶을 마감한 천재….

저자를 수식하는 말들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그의 진솔하고 내밀한 심리가 녹아 있는 글을 통해 하나씩 풀려간다. 1장 '따뜻하다는 것은'은 생활 속의 이야기를, 2장 '아직 말하지 못한 농담'은 작품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공사·1만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앤서니 버지스 '시계태엽 오렌지'

아무래도 성인들의 독서는, 자기 분야가 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마련이다. 결국 순수한 의미에서의 독서는 젊은 시절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래서 교육과 경영에 관한 책들이 내 서재의 가장 눈에 잘 띄는 서가에 꽂혀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조금은 견강부회한 논리일지 모르지만, 슈바이쳐 박사의 오르간 연주 능력이나 아인슈타인의 바이올린 연주를 생각하면 전공이 아닌 부분에서야말로 오히려 자신의 업무에 관한 새로운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 경우, 타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데, 문학을 전공한 아내의 덕을 톡톡하게 본다.

앤서니 버지스의 '시계 태엽 오렌지'(민음사)는 내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과연 우리들의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의 도움으로 인간의 도덕성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작가의 질문은 과학적 사고와 편의에 젖은 우리들 모두에게 기술혁명의 한계, 기술을 즐기고 사는 것과 종속돼 사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끼게 해 준 작품이다.

더구나 교육자인 나에게는 우리 교육의 시작은 어디이며 어느 과정들을 통과해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하는, 현대 교육의 직면 과제에 대한 깊은 사유의 시간을 갖게 했다. 또 그것은 우리 대학이 인성교육의 실천이라는 방향으로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기까지 했다. 비슷한 시기에 읽은 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과 함께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인간 자유의지의 한계

인간의 자유의지는 누구의 것이며, 그것은 도덕적 선택과 관계없이 왜 각자의 인간에게 속해야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이며 부정적 존재인 알렉스라는 불량한 학생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위하여 사회적 해악적 행위까지 그 범위를 넓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에 대한 가장 본질적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에서 내가 느낀 가장 심각한 문제는, 15살짜리 알렉스는 아직 사회화 과정을 완벽하게 완수하지 못한 존재인 학령기의 청년이며 교육의 교화 활동이 가장 많이 부여될 학생이라는 점이었다. 살인까지 저지른 학생을 처벌하고, 그것을 교화하기 위하여 의학적 기술과 정책적 판단으로 외과적이며 심리학적 장치를 사용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한다는 의도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는 데에 있었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교육자들의 존재 의미인 그들에게 몇 가지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데에 있지 않고, 사람답게 살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민주적 시민으로의 양성이란 교육 목적은, 여러 가지 교육제도와 교육의 서비스 안에서 성취돼야 하는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는 선인들의 말에 나는 공감하며, 그래서 이 책이 제기한 자유의지의 문제와 교육에서 교화라는 요소는 이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라 믿는다.

오 장 원
〈광주여자대학교 총장〉